

野 우물안 당권경쟁... 흥행부진에 속탄다

후보간 극심한 네거티브 공방... 국민적 관심 못 끌어내

탈당·연말정산 논란 등 악재 겹쳐 '그들만의 리그' 위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이 좀처럼 흥행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우선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면서 지도부 경선 구도 자체가 1부 리그(당권)와 2부 리그(최고위원)로 나뉘어 흥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월 샷' 경선을 하는 것도 지방 순회 합동연설회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며 흥행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당원들이 전체 선거인단의 85%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10%를 차지,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견인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평가다.

후보들도 민심보다는 당심 잡기에 치중하고 있다. 비전과 이슈 파이팅보다는 당내 계파주의와 지역주의를 토대로 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민심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 상황도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달 중순에는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망종 리턴' 사건이 정국을 뒤덮었다. 이달 초반의 지방 순회연설회 중에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항명 사태와 김부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 파동 등이 빚어졌다.

최근에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과 연말정산을 앞두고 불거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정동영 전 상임고문의 탈당과 국민모임 합류 등으로 전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전

대 이후의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전대 결과와 맞물린 국민모임과 정의당 등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22일에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진영에 있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당추진 원탁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전대가 국민의 외면을 받으면서 야권 재편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전대의 흥행 부진은 새정치연합의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전대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새정치연합의 내부 신뢰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전대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대표가 강력한 통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내부 분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전대 결과에 맞물려 신당 창당 흐름이 본격화 되고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권 재편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 재편은 호남 민심의 항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호남 민심이 새정치연합의 전대 결과에 어떠한 평가를 내리느냐가 향후 야권 재편에 있어서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동상이몽’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오른쪽부터), 이인영, 문재인 당대표 후보가 22일 충북 청주시 명암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후보 충북 합동연설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머니 입관때 국회의원 배지 넣어 하늘에서 아버님께 전해달라 부탁”

주승용 최고 후보 선거전서 ‘감성행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주승용 후보의 '감성 행보'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각 지역위원회 추최로 열리는 당원들과의 소규모 간담회에서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공약보다는 그동안의 정치 역정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 놓으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주 후보는 지지 호소에 앞서 정치 입문과 여정을 설명하면서 '부모님'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당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1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2천여표 차이로 낙선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17대 국회의원 당선 한 달 만에 눈을 감으신 어머니에 대한 회한을 토로하며 인간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 후보가 어머니 장례식 입관 때 국회의원 배지를 웃고 씬에 달아드리며 '하늘에서 아버님께 배지를 달아드리라 달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많은 당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곤 한다.

주 후보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여수에서, 무소속으로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황색 바람을 뚫고 도의원, 군수,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3선 국회의원으로 성장한 것은 지역 민심과의 '신뢰'가 원동력 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8명의 최고위원 주자 가운데 수도권 후보가 7명(서울 5명, 인천 2명)이라는 점에서 두 표 가운데 한 표는 수도권 후보를, 나머지 한 표는 지역 대표 후보인 자신을 선택해 달라달라는 자세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감성 행보가 당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어 주 후보가 치열한 선두권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가지 않는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혁신위 '오픈프라이머리' 토론

도입엔 공감... 방법엔 이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원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으나 구체적 방안과 도입 시기 등을 놓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당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 모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예비 선거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도입'을, 박 의원은 '탑투(Top two·1, 2위 본선 진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예비선거일에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서 정당 공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선거일은)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정도가 어떨까 한다"며 "지역적 공천을 막기 위해선 전라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정당과 무관하게 누구나 후보자로 예선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1·2위가 본선에 나가, 유권자가 정당과 무관하게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 현안을 챙겨라” 의정보고회 잇따라

박해자, 26일부터...임내현 진행중·장병완은 이미 끝내

강기정, 2월 중...김동철·박주선·권은희 의원은 3월에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한 박해자(서구 갑) 의원은 오는 26일부터 의정보고회를 시작한다. 선거구 11개동을 매일 1~2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정을 보고 지역 현안을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박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등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가급적 주민들의 현안문제 등을 경청할 예정이다.

임내현(북구 을) 의원은 지난 9일 운암 2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보고회를 진행중이다. 국회 일정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매일 1~2개동을 도는 순회 의정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주민속원사업이었던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 IC 입체와 예산 확보,

5·18 7차 보상법 대표 발의 등의 자신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자세히 소개하며 주민들과 소통을 넓혀가고 있다.

강기정(북구 갑) 의원은 2·8 전당대회를 전후해 의정보고회를 시작해 설 명절 연휴 이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나눠 그동안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주민들의 민원 등 의견을 정취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의정보고회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2월까지 '2015 북구 갑 신년 100분 연속 기획 토론회'를 진행한다.

북구 갑 지역위원회 당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상설위원회 모델 만들기 ▲'풀뿌리' 정당의 주인 ▲나눔 봉사활동 등의 주제로 오는 다음달 26일까지 열린다. 김동철(광산 을) 의원은 국회 2월 임시회가 끝난 뒤 3월중으로 의정보고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애초 2월 중 의정보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3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병완(남구) 의원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장 의원은 이 기간중 선거구 16개 동을 비롯한 각 기관, 경로당 등 남구지역 골목을 누비며 지역민들과 소통을 넓혔다는 평가다. '타운을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의정보고회에서 장 의원은 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유치, 문화기술 연구소 조성 신축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신축확보 성과를 소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기발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교육안내
· 교육기간: 2015년 2월 16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주간반 오전 9:00~1:20 / 야간반 오후 6:00~10: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10,000원

원서접수 ~ 2015년 2월 6일(금)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 (여전도사과정) 모집

지원자격: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수업형태: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교육일시: 2015년 3월 2일 개강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제출서류: 입학원서(사진 3cmx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혜택: 매학기 신학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문의할 곳 062)605-1063, 1112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지원자격: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수업형태: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교육일시: 2015년 3월 5일 개강
제출서류: 입학원서(사진 3x4cm 2매) 1부
혜택: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지원자격: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수업형태: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교육일시: 2015년 3월 5일 개강
제출서류: 입학원서(사진 3x4cm 2매) 1부
혜택: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